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현재 우리의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감소, 산업화 영향 등으로 점차 낙후되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교인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농어촌 교회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대로라면 존속이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023년에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4년 8월, 농어촌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농어촌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 (47%)가 한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절반이 넘는 목회자(57%)는 향후 10년 내 교회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녹록지 않은 농어촌 목회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농어촌 교회 목회자 5명 중 1명(21%)은 10년 후 시무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 의견을 피력해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정통합 농어촌 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예정통합 소속 농어촌교회 담임목사																		
조사 방법	비대면/대면 설문 조사																		
표본 규모	<p>1,835명 (유효 표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연령</th> <th style="text-align: center;">표본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백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대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82</td> <td style="text-align: center;">9.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781</td> <td style="text-align: center;">42.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841</td> <td style="text-align: center;">45.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응답</td> <td style="text-align: center;">31</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83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body> </table> <p>-전체 3,038개 교회 담임목사 대상 조사 (회수율 60.4%)</p>	연령	표본 수	백분율	40대 이하	182	9.9%	50대	781	42.6%	60대 이상	841	45.8%	무응답	31	1.7%	계	1,835	100.0%
연령	표본 수	백분율																	
40대 이하	182	9.9%																	
50대	781	42.6%																	
60대 이상	841	45.8%																	
무응답	31	1.7%																	
계	1,835	100.0%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조사 기간	2024년 2~3월 (약 1개월 진행)																		
조사 기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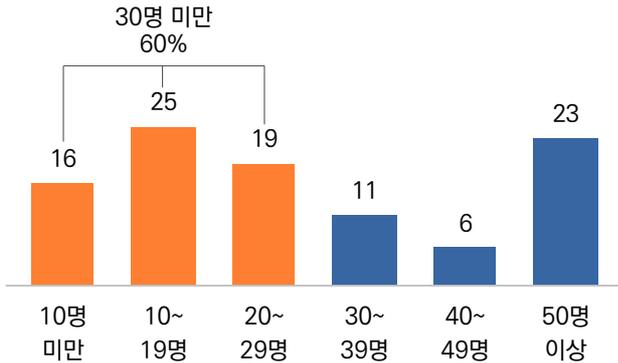
01

[농어촌 교회 실태]

전체 농어촌 교회 10곳 중 6곳, 출석 교인 수 30명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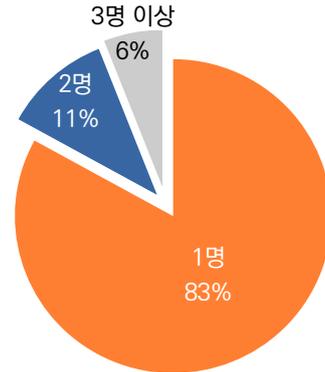
- 지난 주일예배에 출석한 성인 교인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19명'이 25%로 가장 많았다. 50명 미만인 교회의 비중은 76%, 30명 미만인 교회의 비중은 60%로 10곳 중 6개 교회에 해당했다.
- 교회의 교역자 수(담임목사 포함)는 '1명'이 83%로 가장 많았다. 담임목사 '나 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림] 출석 교인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Note)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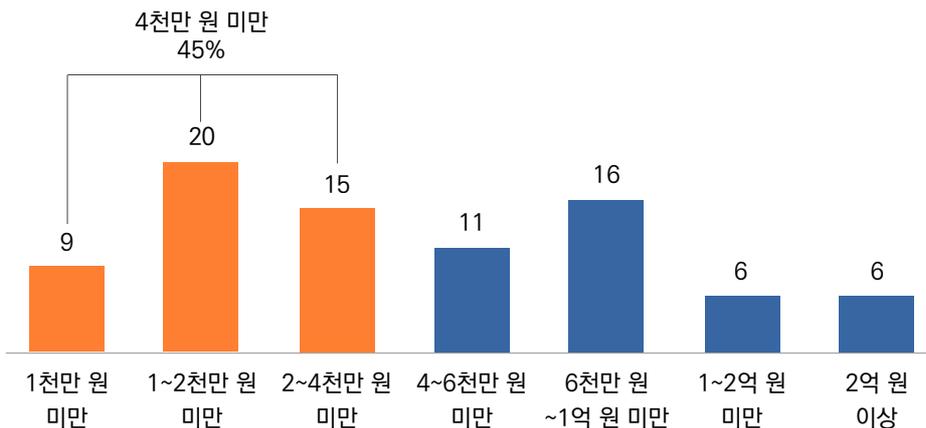
[그림] 교회 교역자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교회 1년 예산 4천만 원 미만, 45%

- 2023년 기준 교회의 연간 재정 규모로는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2천만 원 미만'은 총 29%, '4천만 원 미만'은 절반 가까이인 총 45%를 차지했다.

[그림] 교회 연간 재정 규모 (농어촌 교회 목회자, 2023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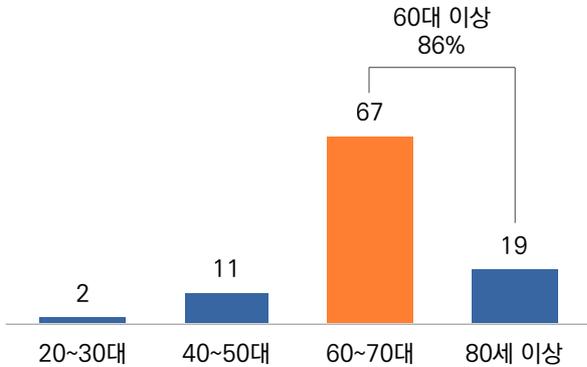


Note) '무응답' 제외

출석 교인 주 연령대, 60대 이상이 86%!

- 지난 주일예배 참석 기준으로 주 연령대를 물어본 결과, '60~70대'가 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0대 이상'이 19%로 높았는데, 주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86%에 달했다.

[그림] 출석 교인 주 연령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Note)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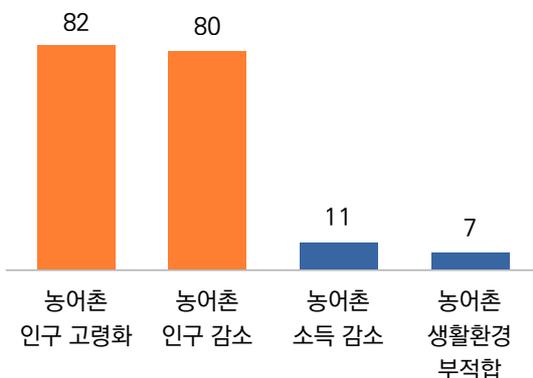
02

[농어촌 목회 인식]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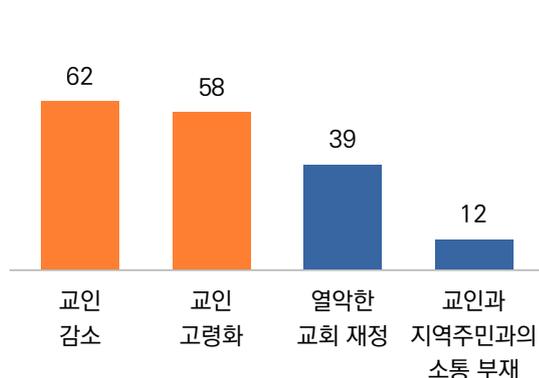
- 시무교회의 가장 심각한 외부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82%)와 '농어촌 인구 감소'(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내부 문제로도 '교인 감소'(62%)와 '교인 고령화'(58%)가 가장 높게나, 내외부 문제 요인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인구 변동은 출생, 사망, 이동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어촌 교회의 고령화와 교인 감소 문제 역시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교회의 외부 문제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4위, %)



Note) '문제 없음', '기타',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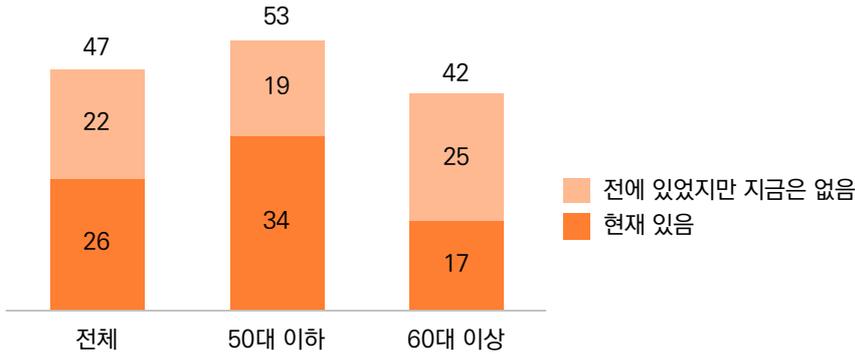
[그림] 교회의 내부 문제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4위, %)



농어촌 목회자 절반 가까이, ‘교회 떠날 생각 한 적 있어!’

- ‘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현재 떠날 생각이 있다’ 26%,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22%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47%에 달했다.
- 담임목사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5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현재 떠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34%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그림] 현 교회를 떠날 생각한 적 있는 비율 (농어촌 교회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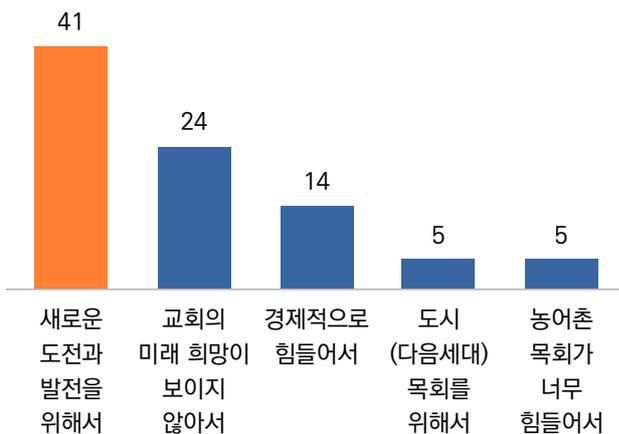


Note) 합이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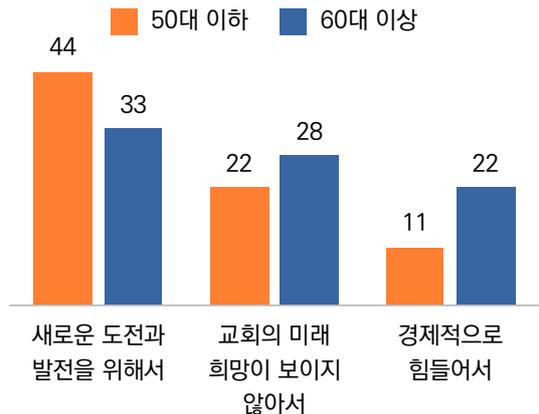
교회 떠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새로운 도전과 발전 위해!’

- 현재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41%),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24%), ‘경제적으로 힘들어서’(1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목회자는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 60대 이상 목회자는 ‘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 (현재 교회 떠날 의사 있는 목회자, 상위 5위, %)



[그림]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 (현재 교회 떠날 의사 있는 목회자, 연령별,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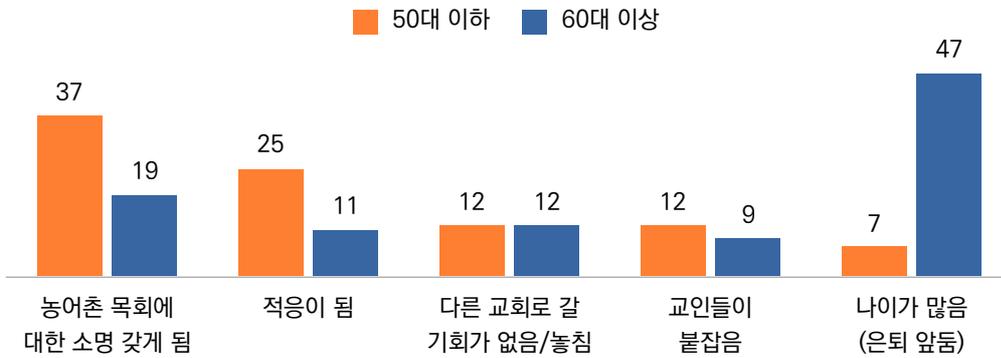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50대 이하 목회자의 교회 떠날 생각 접은 이유,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

-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었지만 철화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하 목회자는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됨'(37%)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적응이 됨'(25%)이 뒤를 이었다.
- 60대 이상 목회자의 경우 '(교회를 떠나기에는) 나이가 많음'(47%)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교회를 떠날 의사 철화 이유 (현 교회 떠날 의사 있었지만 철화한 목회자, 연령별, 50대 이하 기준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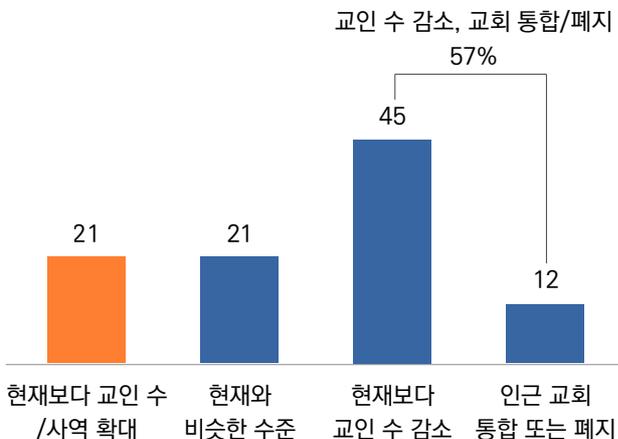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03 [농어촌 교회의 미래와 희망]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 교회 성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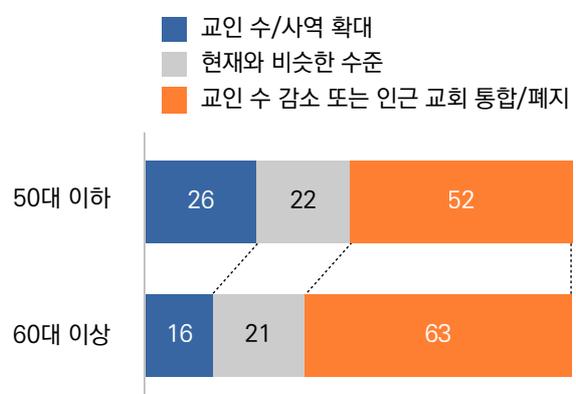
-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향후 10년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어본 결과,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교회 유지가 어려워 '인근 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될 가능성 있음'(12%)까지 더하면 57%가 현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현재보다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21%로 나타났다. 즉 5명 중 1명의 농어촌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목회자(26%)가 60대 이상 목회자(16%)보다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더 많이 내놓았다.

[그림] 10년 이후 교회 전망 (농어촌 교회 목회자, %)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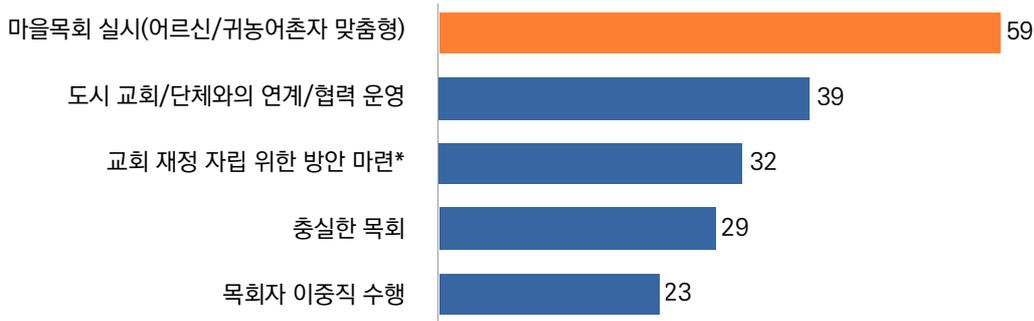
[그림] 10년 이후 교회 전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연령별, %)



농어촌 교회 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마을목회’!

- 이러한 농어촌 교회의 운영과 발전 위해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마을목회 실시’(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르신 돌봄이나 귀농·귀촌자의 필요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 외 ‘도시 교회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운영’(39%), 그리고 영농조합이나 교육센터와 같은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 마련’(32%)이 뒤를 이으며, 농어촌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의견이 나왔다.

[그림] 농어촌 교회 운영/발전 위해 필요한 노력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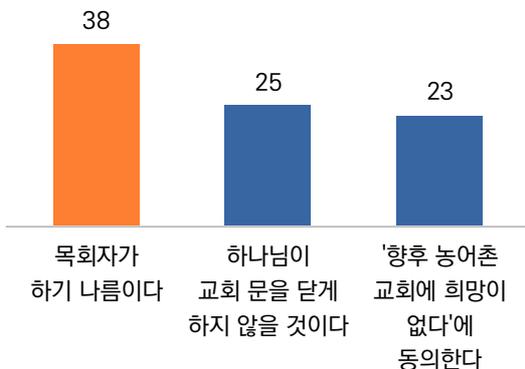


*영농조합법인, 지역복지센터, 교육센터, 힐링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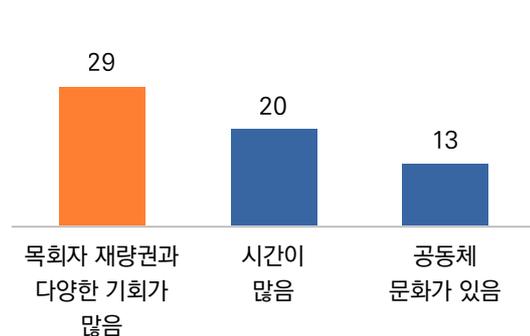
농어촌 목회자 10명 중 4명,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희망 있다’!

- ‘향후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목회자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응답이 38%로 희망 없다는 말을 거부하였으며, 이어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25%), ‘향후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목회자의 역량 또는 믿음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어촌 교회의 장점으로 ‘목회자 재량권과 다양한 기회가 많음’(29%)과 ‘시간이 많음’(20%)이 주요하게 꼽혔다. 이는 앞서 ‘목회자의 노력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하며, 농어촌 교회가 갖는 자율성과 가능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상위 3위, %)



[그림] 농어촌 교회의 장점 (농어촌 교회 목회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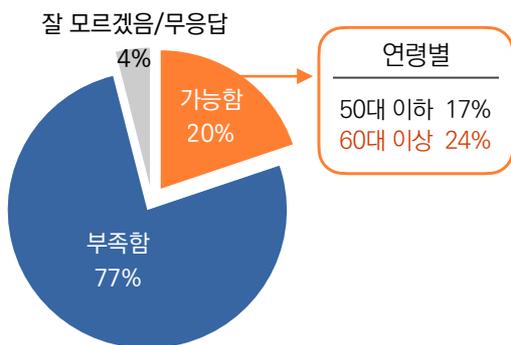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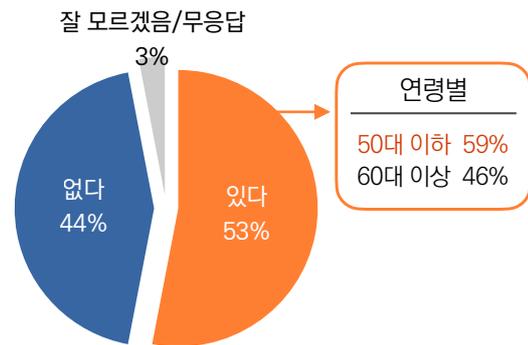
[농어촌 목회자의 경제 실태] 사례비만으로 생활 가능한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에 불과

-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 교회 사례비만으로 가정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어촌 목회자가 사례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가능하다’는 비율이 17%로 더욱 낮았다.
- 또한, 전체 응답자의 5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0대 이하 목회자의 부채 보유 비율은 59%로 평균보다 높아, 젊은 목회자일수록 자녀 양육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교회 사례비만으로 가정생활 가능 여부 (농어촌 교회 목회자)



[그림] 부채 유무 (농어촌 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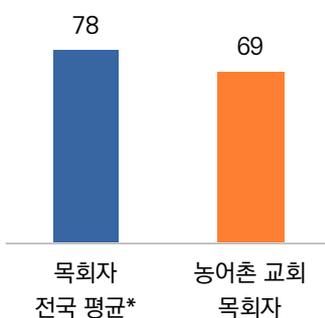


Note) 합이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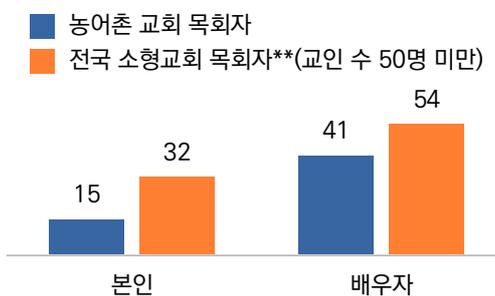
농어촌 목회자의 이중직 비율, 본인 15%, 배우자 41%!

- 목회 외에 다른 경제활동, 즉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이중직 찬성 비율이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다.
- 현재 이중직 여부에 대해서는 15%의 목회자가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50명 미만 전국 소형교회 목회자의 평균 이중직 비율(3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정도이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도 41%로, 전체 소형교회 목회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5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이중직 '찬성' 비율 (%)



[그림] 이중직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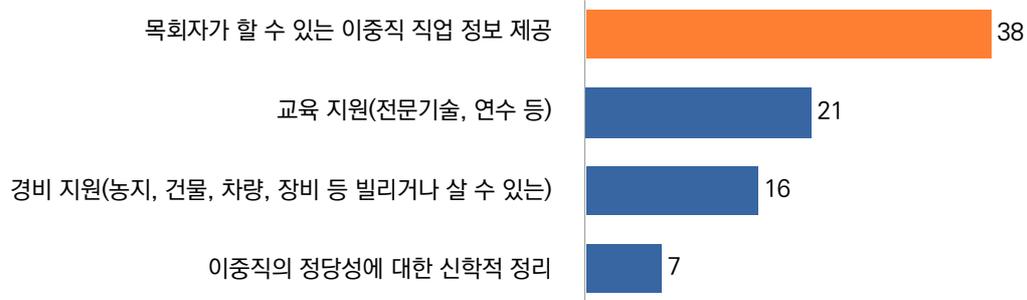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05.2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이중직 참여를 위한 필요 사항, ‘직업 정보 제공’!

- 이번에는 현재 이중직 여부를 고민 중인 목회자(N=221)를 대상으로, 이중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질문했다. 그 결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중직 직업 정보 제공’(3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교육 지원’(21%), ‘경비 지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제적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교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림] 이중직 참여를 위한 필요 사항 (이중직 고민 중인 목회자, 상위 4위, %)



이번호 요약

1. 출석 교인 주 연령대, 60대 이상이 86%

- 지난 주일예배에 출석한 성인 교인 수는 '30명 미만'이 60%를 차지했으며, 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모두 86%에 달했다.

2.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 시무 교회의 10년 이후 전망을 물어본 결과, 57%가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45%)하거나 '인근 교회와 통합 또는 폐지'(12%)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21%로 나타났다.

3. 농어촌 교회 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마을목회'

- 농어촌 교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는 '마을 목회 실시'(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농촌교회는 절박합니다. (예장통합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김정운 위원장, C채널 굿데이)

관련 성경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16)

목회 적용점

농어촌 교인의 고령화와 감소는 교회 재정과 사역 인력 부족을 초래하며, 새로운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교회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교회 상황에 맞는 '마을목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농어촌 교회 조사*에 따르면 마을 목회를 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교회 규모가 작아서'가 꼽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목회의 강점으로 드러난 '목회자 재량권', '공동체 문화' 요인은 소규모 교회라도 마을 목회를 시작할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회를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점으로 바라보고, 농어촌 교회 간 연합 및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역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대 간 연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 사역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가 단기적 또는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도시 교회 청소년·청년을 위한 캠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다.

농어촌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교인 수 감소를 넘어 농어촌지역에 신앙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공동의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사명을 이어왔다. 이번 조사에서 5명 중 1명 꼴로 농어촌 목회자가 10년후 시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이야말로 농어촌 교회가 지닌 강점을 살리고,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내 지속 가능하고 강한 신앙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넘버즈 189호 참조(기독교대한감리회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